

‘12년 1~6월, 일본기업의 M&A 동향

- 유럽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글로벌 M&A가 축소하고 있는데도 일본기업에 의한 해외M&A는 활발하게 진행
- 특히 일본종합상사에 의한 해외자원기업 인수와 日중소기업의 해외M&A가 증가한 것이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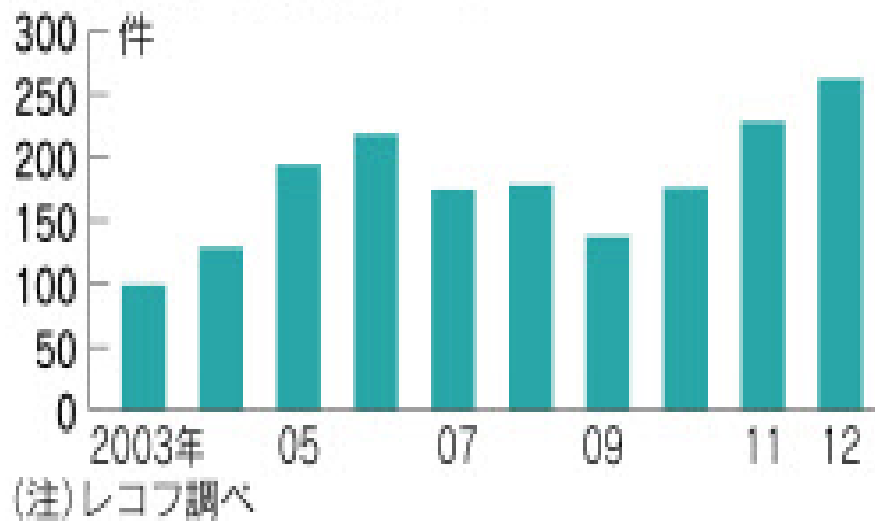
□ 일본기업에 의한 해외M&A는 과거 최대 실적

- RECOF에 의하면, 일본기업에 의한 해외기업의 M&A가 확대되고 있으며, 2012년 상반기 실적은 262건으로 1990년 247건을 상회, 22년 만에 과거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
 - * 1~6월 건수는 262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15% 증가
- 이처럼 M&A가 확대되고 있는 배경은 엔고와 일본 기업들의 풍부한 여유자금 요인으로 대기업만이 아닌 지방 중견기업까지 M&A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

□ 일본기업의 외국기업 M&A 동향

- 2012년, 1~6월 기간 중 일본기업의 외국기업 M&A는 금액기준 3조 4904억엔으로 작년 동기대비 9%증가
- 2006년 1~6월의 4조 4681억엔에 이어 과거 두 번째로 높은 수준
- 개별 안건을 보면 일본종합상사에 의한 대형M&A가 주목되고 있는데 해외에서의 자원, 인프라관련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증가

日本企業による海外 M&A(1-6月)



- 미쓰비시상사는 캐나다에서 신형가스개발을 위해 2300억엔을 투자하였고, 마루베니는 미국곡물회사를 3000억엔으로 인수
- 지방중견기업에 의한 M&A가 증가한 것도 1~6월기의 특징
 - 자동차부품 기업인 大豊工業(日아이치현)은 중국의 자동차엔진용 소재기업을 인수하였고, 제약회사인 중부약품(기후현)은 중국의 드럭스토어 관련기업에 자본 제휴한 사례가 대표적임
 - 일본중견기업들이 해외M&A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침체되고 있는 일본내수시장을 대체, 성장이 지속되는 신흥국에 진출함으로써 성장확대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
- 10억엔 미만의 M&A가 전체 약40%를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M&A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도 특징
 - JETRO관계자는 “거래처들이 해외사업을 전개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” 면서 이러한 위기의식 때문에 일본 중소기업이 M&A를 활용,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

□ 세계 전체적인 M&A는 감소

- 미국의 로이터에 의하면 세계전체의 1~6월 M&A금액은 유럽채무 위기 영향으로 작년 동기대비 약20% 감소
- 닛케이신문은 일본기업에 의한 해외M&A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, 세계M&A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외시장에서 일본기업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
- 하반기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M&A 안전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, 매수 가격이 떨어지면 일본 기업들에게는 좋은 찬스가 되어 일본 기업에 의한 M&A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

□ 시사점

- 일본기업의 해외M&A는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
- 특히 일본중소기업의 해외M&A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글로벌 비즈니스에 강점이 있는 우리기업은 일본기업의 약점을 보완하는 형태의 해외공동 진출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
-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인프라, 자원개발 등 해외시장에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기업들도 해외M&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
- 우리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해외선진기업들의 M&A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해외M&A에 취약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

<참고자료>

日経新聞(2012.7.3.). 「海外M&Aが最多, 22年ぶり」